



은해사 대웅전. 편액은 추사의 글씨이다.

최현의 산 이야기 32 팔공산3

거조암 골짜기에 정혜쌍수 선풍이 가득

팔공산(八公山)은 신라시대의 오악(五嶽) 중 중악(中嶽)에 해당하는 산으로서 부악(父嶽)이라고도 불렸다. 즉 팔공산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신라의 진산(鎭山)으로서 신격(神格)이 부여된 아버지 같은 든든한 명산이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팔공산에는 바위마다 불상들이 새겨져 있고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많은 불교문화재들이 널려 있어 신산스런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안식처와 종교적인 귀의처가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다.

팔공산의 주봉은 비로봉(毘盧峰)으로 진리의 본체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을 의미하고, 산줄기의 동남쪽 끝인 관봉(冠峰)에는 동방의 이상향인 정유리세계(淨琉璃世界)를 관장하는 약사여래불이(藥師如來佛)이 모셔져 있다. 서쪽 산줄기가 끝나는 제2 석굴암이라고도 불리는 곳에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서방정토(西方淨土)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제2 석굴암이라고도 불리는 삼존석굴(三尊石窟)은 서산 마애불(磨崖佛)이 '백제의 미소'라던 '신라의 미소'로 비유되고 있다.

흔히들 경주 남산을 신라인이 이룩한 부처님 세계라고 말한다. 이는 골짜기마다 불상과 탑과 절터가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이다. 팔공산 또한 경주 남산에 버금가는 부처님 땅으로 팔공산 안에 현존하는 사찰만도 천다섯 곳이나 되고 중요한 불교문화재만 추려보아도 백점이 넘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많은 사찰 중에 동화사(桐華寺)가 팔공산의 중심에 우뚝 서 있고, 동쪽으로는 은해사(銀海寺), 서쪽으로는 파계사(把溪寺)가 자리잡고 있다. 신라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대기람으로 성장한 동화사

는 진표율사(眞表律師)가 법상종(法相宗)의 근본도량으로 삼은 금산사(金山寺), 그의 제자 영심이 머물던 법주사(法住寺)와 더불어 법상종의 3대 사찰로 꼽히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신라 영토 안의 후백제 지원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이후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師), 조선의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에 의해 여덟 차례의 중창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암자만도 여덟 곳이나 거느린 은해사는 동화사와 버금가는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다섯 점이나 편액으로 남아 있다.

은해사중건기(銀海寺重建記)에 보면 "대웅전, 보화루(寶華樓), 불광각 세 편액은 모두 추사 김상공(金相公)의 묵묘(墨妙)"라고 했다. 은해사역변(銀海寺沿革)에는 "문의 편액인 은해사(銀海寺), 범당의 대웅전, 종각의 보화루가 모두 추사 김시량(金侍郞)의 글씨이며, 노전(盧殿)의 일로향각(一爐香閣)이란 글씨 또한 추사의 예서(隸書)이다"라고 했다.

추사는 1848년 12월 제주도 귀양길에서 풀려나 한양에 돌아오게 되는데 1851년 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 전해지고 있는 은해사의 추사 글씨는 2년 정도 한양에 머물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오백나한 절'이라고 알려진 거조암은 규모는 은해사보다 작은 산내암자이지만 불교문화재의 비중은 큰절인 은해사보다 크다. 거조암은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지눌이 1190년부터 7년간 머물면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시작한 곳이다.

정혜결사는 개경 중심의 보수화되고 타락한 불교계에 대한 비판운동이자 개혁하려는 실천운동이었다. 정(定)

과 혜(慧)를 함께 닦아 한마음으로 통일될 때 온전한 수행이 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정혜결사가 1200년 조계산 송광사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거조암이 그 중심도량이었다. 그리고 오백나한이 모셔져 있는 영산전(靈山殿)은 수덕사 대웅전의 뒤를 잇는 백제계 고려 건축물이다.

고려 건축물은 몇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거조암 영산전, 그리고 유교 문화재인 강릉 객사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파계사는 왕실의 원당사찰로 승유역불정책의 엄격한 조선시대에 관부의 잡역에 파계사 승려를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양반과 관아의 침탈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많은 당우전각을 왕실의 내탕금을 하사하여 짓게 하였다.

'동이'라는 사극에 나오는 숙종과 그의 아들 영조, 손자 정조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인연을 맺어 왔는데, 숙종이 원당사찰로 삼고 영조가 지음전(慈應殿)이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 보냈고, 정조는 천향각(天香閣)이라는 어필 편액을 하사하였다.

파계사는 풍수 지리적으로 비보책(裨補策)이 쓰여진 사찰이기도 하다. 아홉 갈래나 되는 절 좌우의 물줄기를 따라 지기(地氣)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계곡을 장악한다는 파계(把溪)라는 절 이름을 택했고, 법당 앞의 누각도 골짜기의 지기를 눌러준다는 진동루(鎮洞樓)로 이름지었다. 팔공산 일대의 사찰들이 산지중정형(山地中庭形)으로 누각 밑을 통해 법당에 이르는 동선인데 파계사는 지기의 흐름을 막기 위해 진동루 양 옆으로 돌아다니게 동선을 구축하였다. ■최현 (아시아문화원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까마귀의 아침

까옥- 깧- 까- 까- 까아-
까마귀가 왔다.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산 아래를 보고 짓는다. 꼬리날개까지 들썩이며 온 힘으로 짓는다.

까- 까- 깧- 까옥-
'여기는 내 세상' 이니 그리 알라구?
해마다 가을이 깊어져 겨울이 가까이 보일 무렵, 까만 모습을 불쑥 드러내며 자신의 세상임을 알린다. 산중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전봇대와 이동통신 송수신 안테나에 올라앉아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외친다. 혹시 잊은 사람이라도 있을까, 기억을 되살려주겠다는 듯 온몸으로 우짖는다.
목소리가 걸쭉하고 투박하기 때문일까? 내가 듣기에도 좋은 소리는 아니다. 저 승사자의 옷차림을 닮아서일까? 온통 새까만 게 예쁘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등성이 너머에 사는 기동이 어머니가 까마귀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썩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 쓴 시가 있다.

내가 사는 마을은 산 중턱에 있어 산 아래 골짜기를 가득 메운 운무의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 많다. 햇살이 동산에서 비치기 시작하면 운무는 꾸물럭꾸물럭 제 몸을 흐트러뜨리며 산 위로 오른다

오늘도 막 그때다. 마을 가운데 있는 삼거리 전봇대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요란하게 짓어댔다. 각각각각 마침 밭으로 나가던 기동이네 아주머니가 전봇대 아래서 밭을 밟았다(아주머니는 까마귀를 나쁜 새라고 생각한다. 요즘 따라 웬 까마귀가 이리 많은지 아침마다 까마귀 소리로 시끄러웠다)

고개를 젓히고 까마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던 것일까 아주머니가 침을 뱉듯 말을 뱉었다. 뿡뿡뿡뿡

햇살은 노란빛의 맑은 모습으로 사람의 집과 밭과 숲을 비추고 있고 산 아래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운무의 갈기갈기 찢어진 몸은 산등성이를 타고 봉우리로 향하는데

각각각각 뿡뿡뿡뿡
 각각각각 뿡뿡뿡뿡
 까마귀는 땅을 보며 짓어대고 아주머니는 하늘을 향해 말을 뱉는다('아침' 전문)

의자 하나도 낱짚을 택해 집안에 들여놓는 아주머니다.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말들을 지금도 철저히 지킨다. 까마귀 소리를 아침에 들으면 되받아 돌려주라고 듣기라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주머니는 전봇대의 까마귀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곤 밭으로 올라간다.

그러저러하게 내려오는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가 보기엔 재미있는 광경이다. 돌의 모습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아침이 또 다른 아침을 여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둠의 끝에서 빛이 피지는 모습이 아침이라면 까마귀의 각각각각 울음소리를 받고 뿡뿡뿡뿡 침을 뱉는 소리를 전해주는 모습 또한 아침이었다.

아침은 무엇인가의 움직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반응하는 모습이다. 사람의 눈빛 같은 것, 물안개는 하늘로 오르고 비는 내리는 것, 낙엽이 지고 새싹이 돋는다는 것, 아침은 고요한 가운데 일렁인다.

스스로 마을의 가장 높은 어른이라고 외치는 까마귀들이 다시 왔다. 까악- 깐아악- 꺾어억-. 아니라고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라고,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까불지 말고, 재수 없으니 꺼져버리라고 뿡뿡뿡뿡 침을 뱉는 소리를 던지며 아주머니는 까마귀를 맞이한다.

침을 뱉으며 욕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웬지 웃음이 나온다. 까마귀도 그리 기분 나쁘거나 놀리는 기색이 아니다. 사람이 어찌하거나 말거나 깧- 까- 깧- 자신의 소리로 아침의 세상을 채우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다. 호랑한 자제로 아침을 맞을 줄 아는 새, 정면 검다고 말할 수 있는 새.

■ 유승도 (시인)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